



INEX

HOUSING MEMBERSHIP MAGAZINE 2006 NO.3 VOL.10

SPECIAL THEME **AUSTRIA** • **IDENTITY** austria in music, classic to modernity, austrian life style, hallstatt • **HOUSE WITH PEOPLE** haus wakolbinger, sargfabrik, versatile design, haus anita, steinhaus, haus neumann, haus zenzbauer • **CULTURE WITH SPACE** kunsthau, rooms in schonbrunn, metalsmith, gabriettes, charity, good house

aesthetic evolution



1 2 5
3
4

1. 본체에 덧붙여 새 집을 지었다. 1층 내부로는 서로 통하고 2층은 각각 독립된 공간이 되게 했다. 2. 새 집의 1층에서 2층으로 오르는 통로는 개메시 유리 천장에 의해 채광이 조절된다. 3. 정원의 한쪽을 차지하는 새 집은 본체와 따로 입구를 두어 독립성을 확보했다. 4. 새 집 2층에 있는 침실은 인마당을 향해 시원하게 열려 있다. 5. 새 집 1층 거실의 소파에 앉은 아내가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을 즐기고 있다.



haus anita

변신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집

NEW EXTENSION

●●● 빈 서역 근처에 있는 엘리자벳 병원에서 마취과 의사로 근무하는 아니타 Dr. Anita Moser는 1940년대에 지어진 2층 집의 아래층을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다. 위층은 할아버지의 누님이 또 다른 친척에게 상속해주었다. 이렇게 하나의 집이 둘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각각 독립적인 공간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했다. 그 답은 바로 증축이었다.

병원의 삼교대 근무로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한 아니타는 아래위 전체 출입구가 하나이고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이 실내에 있어 서로 독립적이지 못한 점, 공간 활용이 실용적이지 못한 점, 정원과의 연결성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, 이를 보완하는 동시에 생활 영역을 실내외로 막힘없이 확장시키는 방안으로 증축을 생각하게 되었다. 다행히 집이 블록의 코너에 위치한 덕에 다른 집보다 더 넓은 정원을 갖고 있었고, 이를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.

먼저 2층의 출입구를 밖으로 따로 내주었다. 그리고는 자신의 정원에 2층짜리 작은 집을 들어앉히고 그 1층을 본체와 연결시켰다. 새 집의 위층엔 욕실이 딸린 침실과 수납 공간을, 아래층엔 아담한 거실과 정원으로 이어지는 넓은 나무 테라스를 두었다. 외부에서 바로 출입 가능한 문을 낸 지하층도 따로 두어 차후에 작업실로 쓸 수 있게 해놓았다.

새 집 마감에는 기존 주택과 잘 어울리면서 따로 손보지 않아도 되는 재료를 썼다. 곧 옛집의 동판 기와지붕과 마찬가지로 전체 마감으로 동판을 돌렸고, 낙엽송 목재와 자연석들로 테라스와 주변을 꾸몄다. 이러한 재료들의 특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상이나 광택이 변하면서 옛집과 닮아간다는 점이다. 모던하면서도 기존 건물과 잘 조화할 수 있길 원했던 아니타는 작지만 넉넉한 이 집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. **NEX** 글 김시아 사진 안홍범